



## 고려시대 京山府의 성립과 변천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Gyeongsanbu in Goryeo

---

저자 (Authors)	한기문 Han Kimoon
출처 (Source)	<a href="#">한국학논집 74</a> , 2019.3, 37-77 (43 pages) <a href="#">Keimyung Korean Studies Journal 74</a> , 2019.3, 37-77 (43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a> Academia Korean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99720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997206</a>
APA Style	한기문 (2019). 고려시대 京山府의 성립과 변천. 한국학논집, 74, 37-7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8 09:3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고려시대 京山府의 성립과 변천

한 기 문

고려시기 경산부의 성립과 변천을 고을의 공간구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산부는 후삼국 쟁패기 동남지역에서 고려와 후백제의 전략적 요충이었다. 고려시기에는 이총언의 태조를 돕는 선택에 따라 940년 군현 명호 개정시에 京山府의 읍격을 가졌다. 성종대 군사적 성격의 都團練使로 바뀌었다. 현종대 15개 속현과 읍치 가까이 4개 부곡을 거느리고, 경산부도의 여러 역과 그리고 원, 진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 군사적 거점지로서 京山府가 되었다.

읍치는 현 성주군일대였다. 고을의 운영은 경산부사와 속관, 호장총이 중심이었다. 수령은 외관청에서 송사 처리와 호장 거망, 감찰, 향교 관리 등을 주로 맡았다. 호장총은 읍사에서 일반행정과 주민 결속 의례를 자복사, 신사를 통해 주도하였다. 향리총은 기인과 향공을 배출하여 상경종사하였다. 재지세력의 무덤 공간은 읍치의 동남 일대로 보이고 그 뒤의 성산이 입보성으로 생각되었다.

경산부의 속현들은 인종대부터 주현화가 진행되어 고려말에는 3개의 속현만 남았다. 무신집권기 농민항쟁기와 몽고와 향전기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 원간섭기 총렬왕과 충선왕대에는 公主府의 탕목읍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재지 호장총의 위세가 높았다. 흥안도호부, 성주목으로 승격되어 계수관이 되기도 하였다. 우왕대에는 왜구가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여 경산부에 두 차례나 침입하였다.

핵심 단어: 경산부사, 호장총, 자복사, 탕목읍, 계수관

DOI URL: <http://dx.doi.org/10.18399/actako.2019..74.002>

## 1. 머리말

읍은 중앙에 대칭되는 고을의 의미이다. 고려시대 읍에 관한 연구는 고려초 지역 세력을 고려한 읍호와 읍격의 지정을 중심으로 군현제 편성의 성격을 구명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sup>1)</sup> 중앙에서의 지방 지배의 관점에서의 논의가 주된 것이었다. 지방 고을 자체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으나 청주, 상주, 밀성군 등 계수관급과 군급의 지리적 범위 검토 연구가 있었다.<sup>2)</sup> 그런데 지주사 이하의 고을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고을 연구에서도 공간구조와 운영에 대해서는 그리 주목하지 않았다.

본고는 경산부 고을을 공간구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고을을 운영하는 데는 외관, 호장층 등이 주체가 되었다. 외관청, 읍사, 향교, 사원, 신사, 입보산성, 무덤공간 등은 고을 구성시설이었다. 이로써 고을의 결속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중앙과도 연결되었다.

경산부에 대해서는 고려초 읍호와 읍격이 지정되기까지 배경과 과정에 대한 논고가 있었고,<sup>3)</sup> 상주계수관을 연구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

- 
- 1) 박종기. 1988. 「고려 태조 23년의 군현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19 ; 김갑동. 1988. 「고려 태조대 군현의 내속관계 형성」. 『한국학보』 52 ; 윤경진. 1996. 「고려 태조대 군현제 개편의 성격-신라 군현제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22 ; 구산우. 1998. 「고려 태조대의 지방제도 개편 양상-『고려사』 지리지틀 중심으로-」. 『부대사학』 22.
- 2) 박종진. 2008. 「고려시기 주속현단위 설정 배경에 대한 시론-청주목지역의 지리적 특징 분석-」. 『한국중세사연구』 25 ; 박종진. 2010. 「고려시기 '상주목 지역'의 구조와 지리적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29 ; 박종진. 2014. 「고려시기 '밀성군 지역'의 성립과 지리적 범위」. 『한국중세사연구』 38 (박종진. 2017. 『고려시기 지방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원 재수록).
- 3) 旗田巍. 1960. 「高麗王朝成立期の府と豪族」. 『法制史研究』 10 ; 황선영. 1994. 「신라하대의 부」. 『한국중세사연구』 1 ; 류영철. 2001. 「후삼국정립기 고려의 지방경영과 府의 성립-邑格의 변화를 중심으로-」.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 정요근. 2009. 「후삼국시기 고려의 주(州)·부(府) 분포와 그 설치 의미」. 『역사와 현실』 73 ; 윤경진. 2018. 「신

었다.<sup>4)</sup>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공간구성과 운영에 초점을 두고 본고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각종 지리지는 물론 경산부를 다룬 고고자료를 주목하고, 향촌 사회의 연구 성과를<sup>5)</sup> 적극 활용·종합하여 진행한다.

고을의 공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례 연구는 국왕 교화 출발점으로서 중앙 상징 공간의 지방에서의 구현 양상과 연결될 수 있으며, 앞으로 공시적, 통시적 연구를 통해 한국 전통시기 고을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 연구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경산부의 성립과 위상

후삼국 쟁패기 고려 태조와 견훤 간의 이 지역에서의 전투는 曹物城 전투와 公山전투 등을 들 수 있다. 조물성 전투는 924년에 있었고 공산 전투는 927년에 있었다. 조물성의 위치는 여러 곳으로 비정되지만, 성주와 가까운 김천 助馬도 그 비정 지역 중의 하나이다. 그러하다면 벽진군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공산 전투는 태조가 김락, 신승겸을 잃는 등 크게 패배한 전투였다. 그 때 태조의 퇴로를 보장해 준 세력이 경산부 지역 세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역에 대한 지방 제도 개편시에 大丘지역이 거의 경산부 관할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 태조에 도움을 주었을 것을 짐작하게 한다. 무엇보다 견훤의 보복이 927년에 벽진군과 인근인 大木, 小木郡에 여러 차례 집중되고 있기<sup>6)</sup> 때문이다.

라말 고려초 京山府 연혁과 碧珍郡, 『역사문화연구』 66.

4) 한기문. 2017. 『고려시대 상주계수관 연구』. 경인문화사.

5) 이수건. 1984.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 강은경. 2002. 『고려시대 호장층 연구』. 해안 ; 구산우. 2003. 『고려전기 향촌지배체제연구』. 해안.

6) 『高麗史』 卷1 世家 太祖 10년, “九月 王聞之大怒 遣使弔祭 親帥精騎五千 遡萱於公山桐藪

당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良文, 索湘, 李愬言, 李能一, 裴申父, 裴崔彦 등이 보인다.<sup>7)</sup> 각기 『삼국사기』, 『고려사』, 『경상도지리지』 등에 나타난다. 이들의 활동시기의 선후, 동일인 여부 등이 논란될 수 있으나, 명확히 밝혀 줄 자료는 부족하다. 『삼국사기』 기록을 중시하여 경산부는 이미 신라시기에 府로 성립되었다는 견해가 있다.<sup>8)</sup> 그런데 그 지역은 성산군 지역이며 태조시 귀부한 양문이 그 지역 호족세력이었다는 것이다.<sup>9)</sup>

『고려사』에는 이충언의 활동과 태조와의 관련성이 있다. 신라 말기에 벽진군을 지키고 있었는데 당시 도적 무리가 층만하였으나, 충언이 성을 견고히 수리하고 고수하니 백성이 그 덕에 편안하였다. 태조가 사람을 보내 협력하여 화란을 평정하기를 요청하자, 이충언이 그 아들 영에게 군대를 인솔 태조를 따라 정벌에 참가하게 하였다. 태조는 그 반대급부로 이충언을 本邑將軍으로 임명하고 이윳 읍 정호 229호를 더해 주었고 충주, 원주, 광주, 죽주 등의 창고 곡식 2200석, 소금 1785석을 주고 편지로 곧은 신의를 표하였다고 한다. 이 벽진군은 신라와 백제 사이의 요충지로서 이충언이 굳게 지켜 태조가 통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938년(태조 21)에 이충언은 81세로 죽었다고 한다.<sup>10)</sup>

이충언과 태조와의 관계가 언제 맺어졌고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충언이 죽고 난 뒤이지만 940년 태조가 군현 명호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때 벽진군은 경산부로 개편되어 이충언이 지킨 벽진군이 태조의 통일에 기여한 바에 따른 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충언의 아들 이영이 곧 이능일이고 근거한 벽진군이 성산군과 달리 고려에서는 개경에서 바라 본 전략적 요충인 경산부로 자리 잡은 것으로

---

大戰不利 萱兵圍王甚急 大將申崇謙·金樂力戰死之 諸軍破北 王僅以身免 萱乘勝 取大木郡 燒盡田野積聚 冬十月 甄萱遣將 侵碧珍郡 芟大·小木二郡禾稼 十一月 燒碧珍郡稻穀 正朝索湘戰死之<sup>7)</sup>.

7) 李明植. 2001. 『羅末麗初 星州地方의 豪族勢力』, 『大丘史學』 65.

8) 황선영. 1994. 앞의 논문.

9) 윤경진. 2018. 앞의 논문.

10) 『高麗史』 卷5 列傳 王順式 附李愬言.

해석한 견해가 제출되었다.<sup>11)</sup> 그리고 경산부를 중시한 배경은 고려 태조의 남방진출로의 요충이기 때문이라는 논의도 있다.<sup>12)</sup> 벽진군은 신라시기의 군명이고 고려 940년(태조 23)에 京山府로 하였다. 앞의 견해를 수용하면 신라말 경산부와 고려시기 경산부 설치라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이 지역의 경산부라는 군사 요충으로서 읍호는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지만 신라시기 성산군 일대에서 고려시기 벽진군 지역으로의 읍치 공간은 이동되었다.

980년(경종 8) 경산부는 잠시 廣平郡으로 되었다가,<sup>13)</sup> 995년(성종 14) 군정적 군현계통의 岱州都團練使가 되었다. 1012년(현종 3) 민정적 安撫使로 되었다. 1018년(현종 9) 知京山府事로서 고려 군현 지방제도상의 위치를 잡게 되었다. 경산부 지방의 통치방식이 군사적인 통치로부터 일반행정관료의 지배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려사』 지리지의 읍격 관계의 정리를 보면 경산부는 상주 계수관에 속하고, 또한 경산부는 다수의 속현을 가졌다. 이를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尙州牧：聞慶郡，龍宮郡，開寧郡，報令郡，咸昌郡，永同郡，海平郡，靑山縣，山陽縣，化寧郡，攻城縣，單密縣，比屋縣，安定縣，中牟縣，虎溪縣，禦侮縣，多仁縣，靑里縣，加恩縣，一善縣，軍威縣，孝靈縣，缶溪縣。

京山府：高靈郡，若木縣，仁同縣，知禮縣，加利縣，八莒縣，金山縣，黃澗縣，管城縣，安邑縣，陽山縣，利山縣，大丘縣，花園縣，河濱縣。

安東府：臨河縣，禮安郡，義興郡，一直縣，殷豐縣，甘泉縣，奉化縣，安德縣，豐山縣，基州縣，興州，順安縣，義城縣，基陽縣.<sup>14)</sup>

11) 윤경진. 2018. 앞의 논문 참조.

12) 정요근. 2009. 앞의 논문.

13) 태조이후 군현행정을 위임받았던 향직의 담당자인 향호들이 매양 공무를 가탁하여 백성을 침해하여 ‘民不堪命’의 사태가 속출하고 外邑使者인 금유·조장이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인해 원성의 적이 되자 성종 2년 금유·조장의 혁파와 12목의 실시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군현제를 실시하고자 한 것을 고려할 때 경산부의 군현등급의 강등은 이와 같은 요인이 작용한 것일 수 있다(성주군. 1996. 『성주군지』).

14) 『高麗史』 卷57 志11 地理2 尙州.

州牧은 主邑으로서 그 직할 屬邑과 향소부곡을 갖는 한편 군현제영역과 부곡제영역을 포괄하는 주읍단위의 지역권을 그 領邑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속군은 7개, 속현은 17개, 부곡은 17개가 있었다. 그리고 상주는 주읍단위의 영읍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京山府와 安東府를 들 수 있다. 경산부는 1군, 14현을 속현으로 거느리고 薪谷部曲, 葦谷部曲, 船南部曲, 蘆谷(在八莒縣)을<sup>15)</sup> 거느렸다. 경산부의 위치는 당대 고문서 자료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大平十一年歲次辛未正月四日高麗國尙州界內知京山府事任若木郡內巽方在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sup>16)</sup>

위의 자료는 1031년(현종 22) 작성된 정도사 오층석탑조성형지기 문서의 첫머리 기사이다. 곧 현종 9년 지방제도 개편이 지난 뒤의 사정을 반영한다. 이에 따르면 고려국-상주계-경산부-약목군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경산부는 상주계수관내의 주현에 속하고 경산부는 그 임내인 약목군 곧 속현을 거느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산부에 그 속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속되고 그 성격이 어떠한지를 속현의 내속 유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7)</sup> 경산부는 원래 신라 本彼縣이다. 경덕왕 때 新安으로 고쳐 星山郡의 영현이 되었다. 뒤에 碧珍郡으로 고쳤다.

高靈郡은 원래 大伽倻國이다. 시조 伊珍阿鼓王에서 道設智王까지 16대 520년간 존속하였다. 신라 진흥왕이 없애고 대가야군으로 삼았다. 경덕왕

15) 『慶尙道地理志』 星州牧 八莒縣條에 “所屬部曲 一 蘆谷 今廢爲村”이라 하였다. 앞의 薪谷·葦曲·船南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이지만 蘆谷은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慶尙道地理志』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16)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上. 서울대학교출판부, 474쪽.

17) 박종기, 2016. 『고려사 지리지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경산부 편을 참조하였다.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초에 내속되었다. 지금의 고령군 지역에 있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康州 영군이었으나 경산부에 영속되었다.

若木縣은 원래 신라 大木縣인데 경덕왕 때 谿子로 개명하고 星山郡 영현이 되었다. 고려에 와서 지금 이름으로 되고 내속하였다. 지금 칠곡군 약목면 지역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강주 영군 성산군 영현에서 상주 영지사부 경산부 속현으로 된 지역이다.

仁同縣은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 『고려사』 지리지 찬자의 주에 따르면 『삼국사기』 성산군 영내 壽同縣은 본래 신라 斯同火縣인데 경덕왕이 개명한 것이나 지금은 미상인데 境土로 상고하면 壽同을 고쳐 仁同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삼국사기』 지리지 강주 성산군 조에 영현 4개소 중 하나로 지금은 미상으로 나온다. 지금 구미시 동부 지역이다.

知禮縣은 본래 신라 知品川縣인데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바꾸고 개령군 영현이 되었다.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 지금 김천 지례면 지역이다. 개령군 영현 중 어모현 1개소만 상주 속현이 되고 미상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경산부로 소속하였다.

加利縣은 본래 신라 一利郡으로 경덕왕 때 星山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바꾸고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康州 嶺郡 성산군으로 되어 있어 강주의 영군 1군과 영속현 4개소 모두 경산부로 이속되었다. 지금 성주군 용암면과 고령군 성산면, 다산면 일대로 추정된다.

八菴縣은 원래 신라 八居里縣이다. 경덕왕 때 八里로 개명하고 壽昌郡 영현이 되었다. 고려초에 八居로 하였다가 그대로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 지금의 칠곡군이다. 『경상도지리지』에는 경덕왕 때 八리가 아니라 八居縣으로 고쳤다고 하여 차이가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수창군은 良州 嶺郡인데 그 영현 4개소 중 하나이다. 신라시기 양주 영군의 속현 1개소가 경산부로 이속한다.

金山縣은 본래 신라 金山縣인데 경덕왕 때 開嶺郡 영현이었다. 고려에

서 舊名을 그대로 이어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 지금의 김천 지역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尙州 영군의 속현이었지만 경산부로 이속되었다.

黃澗縣은 본래 신라시기 召羅縣인데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永同郡 영현으로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 지금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지역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尙州 嶺郡의 속현이지만 경산부로 이속되었다.

管城縣은 본래 신라시기 古尸山郡이다. 경덕왕 때 管城郡으로 개명하였다.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 지금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상주 영군으로 나오는데 관성현으로 하여 경산부로 이속하였다.

安邑縣은 원래 신라 阿冬兮縣으로 경덕왕 때 安貞으로 개명하여 관성군 영현이 되었다. 고려초에 다시 지금 이름으로 하여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안남면 지역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상주 영군 관성군의 영현이었지만 경산부로 이속되었다.

陽山縣은 본래 신라 때 助比川縣이다.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개명하여 永同郡에 영현하였다.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 지금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지역에 있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상주 영군 영동군 영현이지만 경산부로 이속되었다.

利山縣은 본래 신라 利山縣인데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개명하고 管城郡 영현이 되었다.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 지금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역에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상주 영군 관성군의 영현이지만 경산부로 이속되었다.

大丘縣은 원래 신라 達句火縣인데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고쳐 壽昌郡 영현으로 하였다.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 지금 대구광역시 지역에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良州 영군 수창군의 영현인데 이 때 경산부로 이속하였다.

花園縣은 원래 신라 때 舌火縣인데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고쳐 壽昌郡 영현이 되었다.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 지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

면 지역에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良州 영현 수창군의 속현인데 이 때 경산부로 이속되었다.

河濱縣은 원래 신라 多斯只縣인데 경덕왕 때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개명하여 수창군 영현이 되었다.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 지금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일대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양주 영군 수창군의 영현으로 경산부에 이속되었다.

성산군 영현 신안현이던 것이 벽진군으로 되었다가 京山府로 되었다. 신라 때 강주 영군 고령군과 星山郡의 영현 大木縣이 승격하고 성산군의 나머지 영현 약목, 인동 등을 각각 영속하고, 성산군도 가리현으로 개명하여 영속하였다. 양주 영군 수창군의 영현 팔거, 대구, 화원, 하빈 등의 현을 영속하였다. 그리고 상주 영군 관성군의 영현 이산, 안읍 등의 현과 관성군도 관성현으로 영속하였다. 상주 영군 영동군의 영현 황간, 양산 등의 현을 영속하고, 또한 상주 영군 개령군의 영현 지례, 금산 등의 현을 영속하였다. 이와 같이 경산부는 강주, 양주, 상주 등 광역주의 영현을 각기 1군 3현, 4현, 7현 등을 이속 받아 현종 9년에 형성하였다.

경산부는 상주 계수관에 속한 주현으로서 기능하였다. 지방관 파견 기준을 적용하면 계수관격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지만 수령이 파견된 곳이다. 따라서 경산부 속현에 호장 거망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 왕조에서는 경산부와 그 영현들을 형성하여 새로운 교통, 군사의 거점지로 삼았다고 생각된다.

경산부와 그 속군현의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통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역을 살핀다. 『고려사』 병지에 소재한 역명을 현재 지명을 병기하여 경산부도의 25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8)</sup>

18) 정요근. 2008. 『고려 조선초의 역로망과 역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부표 ; 이기백, 김용선. 2011.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참여 역주 등을 참조하여 작성.

京山府道

- 安堰(京山) : 신증28 성주목 남28리 안언역 성주군
- 踏溪(京山) : 신증28 성주목 북10리 답계역 성주군
- 安林(高靈) :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 水鄉(八莒) : 칠곡군
- 綠情(八莒) : 칠곡군
- 舌火(花園) :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 茂淇(加利) : 성주군 벽진면
- 金泉(金山) : 김천시
- 屬溪(黃澗) : 영동군 황간면
- 長谷(知禮) : 김천시 지례면
- 順陽(陽山) : 신증15 옥천군 순양역 영동군 양산면
- 土峴(利山) : 신증15 옥천군 土坡驛 옥천군 이원면
- 利仁(安邑) : 옥천군 안남면 안내면 일대
- 增若(管城) :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 作乃(知禮) : 김천시 구성면 작내리
- 洛陽(尙州) : 신증28 상주목 낙양역 상주시
- 洛山(尙州) : 신증28 상주목 낙산역 상주시
- 會同(永同) :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 猿岩(報令) : 신증16 보은현 元岩驛 보은군
- 舍林(報令) : 신증16 보은현 사림역 보은군
- 秋風(御侮) :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 常平(中牟) : 상주시 모동면 모서면 일대
- 安谷(善州) : 구미시 무을면 안곡리
- 長寧(化寧) : 신증28 상주목 張林驛 상주시 화남 화동 화서 화북면 일대
- 扶桑(開寧) : 김천시 남면 부상리

청주에서 상주 계수관으로 연결되는 길은 경산부도이다. 상주는 4개 역이 있다. 낙동, 낙원 두 역은 상주도에 배당되고, 낙양, 낙산 두 역은 경산부도로 배정되었다. 상주 계수관은 상주도, 경산부도를 연결하는 중심이

다. 전주 내 역시 3개 역 중 연향, 구어 두 역은 상주도로, 안곡은 경산부도로 귀착한다. 상주도 경산부도 두 역도의 교차지이다. 경산부의 설화역과 연정역이 주된 교통근거지로서 상주 - 경산부 - 창령 - 합포(마산)의 선을 연결하면서 계수관인 상주목과 연결되어 있었다.

원과 진은 역과 함께 육로, 수로 교통시설로서 분포한다. 역이 『고려사』 병지에 정리된 것과 다르게 『신증동국여지승람』 역원조에서만 확인된다. 따라서 조선초기에 성립된 원도 있을 수 있지만, 대략의 원과 진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경산부의 속군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명과 진명에 괄호안은 그 치소에서의 방향과 거리 里數이다.

#### 경산부 院·津

경산부 : 仁化(동8), 蛇(남34), 東安(在東安津岸), 公排(동25), 李同(남42), 若寶(북2), 廣大(서20), 大也(북29), 多品(북11), 月恒(북18), 退界(서25), 觀音(남22), 通信(동30) ; 적현(서52, 거창군계), 東安津(동26, 소야강하류), 茂溪津(남49, 동안진하류)

팔거현 : 鳳栖(북15), 崇儒(북, 舊名獨儒), 柳(남5), 鵠(남10)

화원현 : 興王(서1), 引(남20)

가리현 : 沙邑梯(동)

대구현 : 洛中(남3), 大槽(서6), 沙阜(서10), 觀方(서20), 梧(남30), 朴實(서26)

하빈현 : 馬川(남4), 南川(서1) ; 達川津(동16), 東安津(서16)

인동현 : 種子(서2), 所也(동41), 草(북3), 石積(동14) ; 漆津(서10)

약목현 : 光惠(남12)

금산현 : 南(남3), 金泉(金泉驛東), 果谷(남35), 左峴(左峴南, 북38), 堂旨(서21), 梨亭(북20), 豆下(북28) ; 左峴(俗門山東, 선산부계)

지례현 : 禪(북1), 所淵(남6), 石谷(남15), 頭衣谷(頭衣谷驛남1), 所旨(牛馬峴), 上佐(북14) ; 牛馬峴(남46, 거창현계)

고령군 : 安性(남5), 白圭(남11), 救生(서17), 李托(서27), 愁居非(남24), 量田(동18), 玉山(玉山下, 북7)

관성현 : 化仁(化仁津岸), 增若(增若驛南), 金川(남5), 赤登(赤登津岸); 虎津(남52, 源出茂朱縣德裕山下 流爲赤登津), 赤登津(남40, 其源有三, 一出德裕山, 一出中牟縣, 一出報恩縣俗離山), 化仁津(동26)

이산현 : 牛縣(현남), 栗峴(현남)

양산현 : 德水(현남)

황간현 : 李申(서3), 徐松(남9), 朴車(金化部曲, 동38), 玆川(남10), 梨峴(서20), 板草(동30)

원은 교통의 요지인 고개와 읍내에 분포하지만 사원, 나루나 역의 부속 원으로도 있었다. 경산부와 그 속현지역에는 먼저 경산부에 東安津과 茂溪津이 있는데 동안진에는 동안원이 있었다. 금산현에는 김천역 동쪽에 金泉院이 있어 역의 보완 기능을 하였다. 선산경계 좌현에는 고개명과 같은 左峴院이 있었다. 지례현에도 두의곡역에 豆衣谷院이 있었다. 관성현에는 化仁津과 赤登津이 있는데 모두 진명과 같은 원이 있었다. 증약역에는 增若院이 존재하여 역과 진의 기능을 보완하였다.

경산부는 속한 원이 가장 다수이고 동안진과 무계진 등 2개 소의 낙동강 나루가 있어 수륙 교통의 중심지였다. 하빈현과 인동현에도 각기 달천진과 칠진이 있었다. 낙동강 수계와 다른 진은 관성현에 있는 호진, 적등진, 화인진 등은 남강 수계이다. 경산부는 경산부도의 역과 원, 나루 등의 연계망에서 중심지이며 상주계수관의 수관 상주와도 연계되는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 태조시 경산부의 위상에 대해서는 『고려사』에서 “외로운 城이 羅濟必爭의 땅에 있어 홀연히 東南의 聲援이 되었다”라 하여<sup>19)</sup> 전략적 요충임을 말하였다. 태조가 견훤에 보내는 편지에도 경산부의 귀부를 “京山 舍壁以投降”이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데서도<sup>20)</sup> 잘 알 수 있다. 적연국 사비에도 후삼국쟁패시에 경산부 일대가 “時屬完災 道途多梗”이라<sup>21)</sup>

19) 『高麗史』 卷5 列傳 王順式 附李愬言, “以孤城介於羅濟必爭之地 屹然爲東南聲援”.

20) 『高麗史』 卷1 世家 太祖 11年 正月 王答甄萱書曰.

하여 쟁패의 한가운데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태조는 이충언을 ‘本邑將軍’으로 하였다. 무신정권기 이승장이 관성현 위로 있다가 대규모 민심 이반에 직면하여 수령들이 피해를 입던 상황에서 가족을 이끌고 경산부로 이동하면서 ‘本邑’으로 칭하였다. 이승장이 부친 때 이미 경산부를 떠나 상경하였지만 여전히 경산부를 ‘本邑’으로 의식한 것을 말한다.

조선초 기문에 보이는 내용에서도 경산부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초 신숙주가 쓴 동헌인 백화헌의 중수기에 “星州가 고을로 세워진 것은 신라 초기부터 현에서 군으로, 군에서 부로, 부에서 주가 되어 지역을 잃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으니, 횡수를 지나온 것이 남방 고을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 또 속현이 셋이나 되어 땅이 크고 백성이 豪强하고, 고을의 治所가 道の 중앙에 있어서 역마를 탄 사신이 번갈아 이르고 손과 나그네가 모여드는데”라 하였다.<sup>22)</sup> 鄭麟趾의 『臨風樓記』에, “성주 고을 생긴 것이 산천이 수려 기이하고, 인물이 변화하여 尙州·晉州·慶州·福州와 더불어 남방에서 서로 상하를 다툰다. 그 때문에 비록 한 지경의 우두머리는 되지 못하나, 특별히 牧으로 일컬은 것이다.”<sup>23)</sup> 黃瓚의 『南亭記』에는 “성주가 영남 상류에 있어 호구의 번성한 것과 송사의 번다한 것과 빈객의 모이는 것이 한 도의 제일이니, 참으로 통달하고 민첩한 인재가 아니면 盤根錯節에 시험하여 그 효용을 보기 어렵다.”라<sup>24)</sup> 하였다. 조선초의 시문이지만 고려시기에 경산부가 경상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사신이 지나가는 요지로서의 위상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21) 『靈巖寺寂然國師碑』, 『韓國金石全文』, 457쪽.

22) 申叔舟, 『星州百花軒記』, 『保閑齋集』卷14, “星州建邑 自新羅之初 縣而爲郡 郡而爲府 府而爲州 不失境土 以至子今 歷年在南州爲最久 凡三屬縣 地大民豪 州治又居一道之中 駟使交至 賓旅輻奏”.

23) 『新增東國輿地勝覽』卷28 星州牧 樓亭 臨風樓, “鄭麟趾記 星之爲州 山川殊異 人物繁華 與尙晉慶福 相頡頏於南方 所以雖不爲界首而特稱牧也”.

24) 『新增東國輿地勝覽』卷28 星州牧 樓亭 南亭, “黃瓚記 星居嶺南上游 戶口之殷盛 詞訟之好多 賓客之萃集爲一道最 苟非通敏之才 難以試 盤錯而見其用也”.

### 3. 경산부 읍치의 구성과 운영

경산부의 전체적 지형은 남서쪽의 고산지대와 동쪽의 낮은 산지에 둘러싸인 분지형이다. 남서부에는 가야산과 그 준령을 중심으로 형제봉, 독용산, 염속산, 백마산 등의 고산들이 형성되었고, 동남부는 서진산, 도고산, 영취산, 작산 등의 낮은 산 들이 둘러져 있다. 하천은 서북의 독용산에서 발원한 대가천이 남서쪽으로 흘러 고령의 회천에 합류하여 낙동강의 중하류에 유입하고, 염속산에서 발원한 이천과 백마산에서 발원한 백천은 월향면에서 합류하여 군의 동쪽에 흐르는 낙동강 중상류에 유입된다.

『성주읍성지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추정구토성, 추정석성, 추정구 등의 유구가 발견되는데<sup>25)</sup> 모두 현 성주교육청, 성주초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동심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추정구 밖으로 伊川이 돌아 흐른다. 경산부 치소는 이 일대로 추정된다. 고려초부터 이 지역이 치소성이었는지는 미상이나 읍성은 처음 토성이었고 조선시기 경자년 곧 1520년(중종 15)에 비로소 석성으로 다시 쌓았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에 따르면, 조사보고서의 추정 연대가 토성의 경우 고려말이므로 이곳이 바로 경산부 치소였을 것이다.

#### 1) 外官廳과 역대 수령

외관청은 ‘公衙’라 하였는데 경산부에서의 흔적은 百花軒이 그 하나였다. 조선시기 신숙주의 중영기가 있지만, 고려시기 李兆年, 王康, 南在 등의 시에 백화헌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기에도 백화헌이 동헌 기능

25) 2002, 『성주읍성지표조사보고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을 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성 동문안에 靑雲樓가 있었다. 고려 安裕, 林椿, 朴孝修 등의 시에 언급된다. 夢松樓는 치소의 북쪽에 있는데 李崇仁이 남긴 樓記가 있다. 이상의 백화헌, 청운루, 몽송루 등이 치소 공야 건물의 부분으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客舍 건물도 있었을 것이지만 당시를 반영하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경산부 속관에 대한 규정은 백관지 외직조, 식화지 외관록조, 여복지 아종규정 등을 참조하여 구성하면 사, 부사, 판관 등이 있었다. 필요시에는 의사와 문사는 加置하였다.<sup>26)</sup> 그리고 衙從은 각기 사 5, 부사 4, 판관, 법조 각 3이었다.<sup>27)</sup>

역대 수령 명단은 『신증동국여지승람』 名宦 고려조와 『고려사』, 묘지명, 고승비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 경산부 역대 수령

李成美	지경산부사	문종 13	隋書 680판을 새로이 조조 <sup>28)</sup>
金黃元	지경산부사	선종	살인강도를 잘 판단하여 진범을 잡게 함. 銀品을 공납하는 것을 맞추지 못해서 과직 <sup>29)</sup>
李思絳	경산부 판관	선종	김항원부사 시기 판관 <sup>30)</sup>
李永	경산부사	숙종	깨끗하고 부지런히 정사를 살핌 <sup>31)</sup>
崔陟卿	경산부 판관		부리와 백성으로부터 사랑과 두려움을 받음 <sup>32)</sup>
林景和	경산부 통판	인종 5	행정능력으로 명성 치적의 평가에서도 일등 <sup>33)</sup>
金表民	경산부사 판관	인종10	선봉사대각국사비 입석 감독 <sup>34)</sup>

26) 박종기, 2002, 『속관제의 성립과 전개』, 『지배와 자율의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7) 『高麗史』 卷72 志 26 輿服1 鹵簿 外官衙從.

28)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2 13年 5月 甲戌.

29) 『高麗史』 卷97 列傳10 金黃元.

30) 『高麗史』 卷97 列傳10 金黃元, “出守京山府 有吏捕殺人強盜以至 黃元熟視曰 此非賊也 趣令放之 判官李思絳亦名士 力爭曰 此盜已服 宜治罪 不聽 後獲他盜 果向之殺人者也 吏民皆服其神”.

31) 『高麗史』 卷97 列傳10 李永.

32) 『高麗史』 卷99 列傳12 崔陟卿.

33) 『林景和墓誌銘』, 『高麗墓誌銘集成』.

王世慶	경산부 판관	의종대	청백이 칭송됨 <sup>35)</sup>
白賁華	京山府守	고종11	治所에서 작고 <sup>36)</sup>
金瑞芝	副使	충렬왕	향리 裴度와의 사이에 유감으로 파직 <sup>37)</sup>
尹澤	司錄	충숙왕	농사, 학교 수리, 백성들에게 조상의 제사를 권장 <sup>38)</sup>
李寶林	경산부 부사		송사 해결 <sup>39)</sup>
鄭允宜	경산부 부사	충숙왕	이조년을 사위로 삼음 <sup>40)</sup>
丁以達	경산부사	우왕	몽송루 건립 <sup>41)</sup> 42)
河有宗	경산부사	우왕	진주 개경원 건립에 도움 <sup>43)</sup>

이상에서 경산부 부사 혹은 판관으로 온 관리들을 각종 문헌 자료에서 살펴보면 모두 15명이 찾아진다. 경산부사로 임명되어 온 자는 이성미, 김황원, 이영, 백분화, 이보림, 정운의, 정이달, 하유중 등이 이었다. 경산부 부사로는 김서지가 있었다. 경산부 판관으로는 이사강, 최척경, 임경화, 김표민, 왕세경, 윤택 등이다. 부음으로 출사한 임경화를 제외하고 모두 과거급제자이다. 판관으로 부임한 경우는 임경화를 제외하고 모두 과거 급제후 초사직이다. 이들은 모두 치적을 남긴 것으로 묘지명과 열전에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다. 다만 송사를 정확히 해결한 기록만 사례로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경산부사의 주된 역할이 송사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다음의 호장층에 대해서는 거망권, 감독권을 행사하고, 속관 문사를 통해 향교 운영의 역할을 하였다.

34) 『僊鳳寺 大覺國師碑』, 『韓國金石全文』, p.603.

35) 『高麗史』 卷99 列傳12 王世慶.

36) 『白賁華墓誌銘』, 『東國李相國集』 卷36.

37) 『高麗史』 卷32 世家32 忠烈王5 29年, “己酉罷興安都護府副使金瑞芝”.

38) 『尹澤墓誌銘』, 『牧隱文藁』 卷7.

39) 『高麗史』 卷110 列傳23 李齊賢 李寶林.

40) 『高麗史』 卷109 列傳22 李兆年.

4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8 星州 樓亭 靑雲樓.

42) 『星州夢松樓記』, 『陶隱先生文集』 卷4.

4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0 晉州牧 驛院 開慶院.

## 2) 鄉校와 鄉貢

목종 6년 1월의 교서에 “3京 10道の 博士·師長이 생도의 교육을 권려하여 成效를 올린 자가 있으면 이름을 적어 보고하도록 하고 관내 재능있는 학자를 매년 천거하는 향교로 하라” 고<sup>44)</sup> 하여 3경 10도에 향교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종은 外職制를 개정하여 南京과 大都護府에는 文師와 醫師를, 방어진과 지주군에는 文學과 醫學을 각각 1인씩 설치하여 지방교육과 치병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로 보면 도에는 지군사, 양계에는 방어진사 이상에 지방 관학교육 기구인 향교가 설치된 것이 아닌가 한다.<sup>45)</sup>

상주 계수관내에 처음 상주 향교만 존재하였다. 이후 문종대 지군사 이상에 향교가 설치되었었고, 감무가 증치되어 외관이 파견된 지역 모두에 향교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계수관내의 여러 향교를 관할하는 界首官鄉校가 있어서 그 역할을 하였다. 그 지역의 諸生을 모아 科擧에 앞서 모의시험 즉 試才를 점검하였다.<sup>46)</sup> 계수관향교는 교육 뿐 아니라 향공들의 모의 예비시험도 총괄하였다. 상주 계수관에서는 계수관향교가 곧 상주 향교였다.

문묘의 설치시기는 성종 2년 任老成이 宋에서 돌아오면서 4圖와 72賢贊記를 가져 온 바 있다. 宣宗 8년 송의 국자감 예에 따라 72賢의 도상을 國學 벽상에 걸어 놓고 향사를 올리도록 한 바 있다.<sup>47)</sup> 이로 보아 선종대에 문묘제가 확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성주 향교에 5聖 10哲은 塑像으로 만들었는데 15세기 말 康仲珍 목사가 位版으로 바꾸었다는 기록으로 보아<sup>48)</sup> 성리학이 보급됨에 따라 圖象과 塑像 등이 位版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 고려시기 길례 소사에 지방 향교 문선왕묘에 제사기능이 있었다.<sup>49)</sup>

44) 『高麗史』 卷74 志28 學校 穆宗 6年 1月.

45) 송춘영, 1987. 『고려시대 향교의 변천사적 고찰』, 『역사교육』 41.

46) 『高麗史』 卷73 選舉1 科目1 仁宗 22年 2月 判, “東堂監試 赴擧諸生 須赴冬夏天都會 許錄姓名 在外生徒 各於界首官鄉校都會 給狀赴試”.

47) 『高麗史』 卷62 志16 禮4 文宣王廟 宣宗 8年 9月 庚戌.

4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8 星州 鄉校.

경산부에는 문종대부터 향교가 설치되었고 향교내 문선왕묘에 대한 국가 小祀가 시행되었다.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대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처음 절차가 단순하였으나 관료체제가 정비되어감에 따라 복잡한 규정이 생기게 되었다. 1024년(현종 15)에는 향공의 숫자를 주현의 크기에 기준하여 3~1인씩 즉 1000정 이상 주현은 3인, 500정 이상 주현은 2인, 그 이하 주현 1인으로 제한하는 한편 이들은 반드시 界首官이 주관하는 계수관시를 거치도록 한 후, 다시 서울의 국자감에서 재시험을 치러 합격한 다음에야 본 시험인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경산부는 고려초 1000정 정도의 고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경산부에서 향공은 3인 정도 선발되었을 것이다.

과거 응시자의 신분은 제술업과 명경업의 경우 부호장이상의 손이나 부호정 이상의 자로 한정된 것으로 보아 양대업은 향리 중에서도 일정한 선 이상의 자손만이 응시할 수 있었다. 지방리는 크게 둘로 나누어 향공이 될 수 있었던 州府郡縣의 吏와 향공이 될 수 없었던 鄉, 所, 部曲, 驛, 津의 吏로 구분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신분을 상승시킨 다음에 그 중에 吏만이 개인 신분 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은 경산부를 本貫으로 科擧를 통해 從仕한 사례이다.<sup>50)</sup>

경산부 출신 제술업 급제자

인명	급제시기	최고직	부	전거
裴祐	예종 11년 5월	지후(정7)	부 臣秩	사 권14
李棟民		권지감찰어사(종6)		전문 이승장묘지명
李勝章	의종	감찰어사(종6)	부 동민	전문 이승장묘지명

49) 『高麗史』 卷17 禮5 吉禮 小祀 諸州縣文宣王廟.

50) 박용운. 1990. 『자료 과시설행과 제술과 급제자』. 『고려시대음서제와 과거제도연구』. 일지사 참조.

李松茂				전문 이승장묘지명
李百中			부 승장	전문 이승장묘지명
李承休		밀직부사(정3)		사 106
李兆年	향공 총렬왕	정당문학(중2)	부 長庚(경산부리)	사 109
李衍宗		밀직사(중2)	부 승휴	사 106 이승휴 부전
李林宗		헌부산랑(정6)	부 승휴	사 106 이승휴 부전
李仁復	진사 감시	관삼사사(재신)	부 褒(밀직부사) 조 兆年	사 112 이인복
李仁敏	진사	정당문학(중2)	부 褒(침의평리) 조 兆年	石灘集
李崇仁	성균진사	지밀직사사(중2)	부 원구(大護軍) 증 百年	사126 이인임
裴仲線	양정재생	장령(중4)	부 世	貞齋集
裴仲有	대빙재생	승지(정3)	부 世	목은문고 8
裴仲倫	縣丞	전리총랑(정4)	부 世 조 尙	목은문고 8
裴中甫			부 世 조 尙	목은문고 8
李汝忠	별장(정7)	지진주사	부 文廣 조 培	과거사적
李稷	산원(정8)	형조판서(정3)	부 仁敏 조 褒 증 兆年	사126 이인임
李汝良	진사		부 文廣 조 培	과거사적
裴規(張矩)		대사간		과거사적 열조방
都衍	낭장(정6)	지평(정5)		과거사적 사126
李次點	신진사	정언(정6)	부 崇仁	과거사적

\* 사: 『고려사』 전문: 『한국금석전문』.

위의 표에서 이동민의 경우는 기인 선상의 부모를 따라 상경 교육을 받아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짐작된다. 총렬왕 때 향공으로 급제한 이조년은 성주에서 확실하게 향공으로 급제하고 상경종사한 예가 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장경은 본부리인데 다섯 아들이 과거에 올랐다고 하고 이조년외에도 이백년, 이천년도 아들이라 하여 3명을 확인할 수 있으나 두 명은 알 수 없다. 이로 보아 이백년과 이만년도 과거에 합격하였다. 다만 그 사적이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 그 외 급제한 사실만 전하고 향공인지, 아니면 이미 부, 조, 혹은 증조때 향공으로 상경 종사한 자제로서 급제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그 중에는 향공 사례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 3) 京山府司와 호장층

호장층의 기구인 京山府司는 경산부의 치소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구체적 위치는 알 수 없다. 읍사를 기반으로 한 호장층이 경산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51)</sup>

현종 9년 주현 丁 수에 따른 향리 수를 규정하였는데 주부군현의 경우 1000정 이상 호장 8 부호장 4, 500정 이상 호장 7 부호장 2, 300정 이상 호장 5 부호장 2, 100정 이하 호장 4 부호장 1로 배정하고 양계주진의 경우 1000정 이상 호장 6 부호장 2, 100정 이상 호장 4 부호장 2, 100정 이하 호장 2 부호장 1로 배정하였다.

호장은 향리의 집무기관인 邑司를 대표하고 몇 가지 향촌 사회의 자율성을 반영하는 기능을 하였다. 먼저 ‘掌印行公’ 즉 인신을 소지하고 지방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직접 결재하는 기능을 한 것이다. 외관이 설치되지 않은 임내는 호장인신이 바로 관인인 셈이다. 1읍 1개 인신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소지하고 행공할 수 있는 이는 상호장일 것으로 본다. 이 인신은 중앙에서 鑄給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장의 장인행공은 곧 호장이 그 지역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려시기 다가한 행정단위와 임내의 발생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된다.<sup>52)</sup>

각읍의 읍사 수호신에 대한 봉사의 주재자는 호장이었다. 이는 사찬읍지에 전해지는 사례가 있다. 호장이 佛事 주관자로 활동한 사례는 고려초 고문서, 금석문에 다수 있다.<sup>53)</sup>

향리층의 경제 기반은 전래의 토착 기반에다 직전과 읍리전을 지급받게 되고<sup>54)</sup> 징세와 조역 과정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문종대 경행 행사

51) 읍사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 설명은 이수건. 1989. 『고려시대 읍사 연구』. 『국사관논총』 3 참조.

52) 윤경진. 1999. 『고려전기 호장의 기능과 외관의 성격』. 『국사관논총』 87.

53) 구산우. 2003. 『고려전기 향촌지배체제연구』. 혜안. 486-552쪽.

에 外吏가 취렴하여 폐단이 있었다는 사실과<sup>55)</sup> 『고려사』 형법지 금령 총목왕 5년 기사에 人吏가 작당행위를 하여 수탈하는 것을 치죄하는 조항이<sup>56)</sup> 이를 반영한다.

현종 9년 판에서 ‘諸道の 外관이 호장을 擧望할 때는 임명된 기간의 久近과 壇典行公의 연수를 考閱하여 尙書省에 具錄 신청하면 給貼을 허락한다’ 라<sup>57)</sup> 하여 호장의 임명 제청은 해당 읍의 수령이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호장이 되기 위해 청탁 사례까지 발생하였다.<sup>58)</sup> 그리고 사심관이 부호장 이하의 향직을 추천하였다.

현종 9년에 마련된 수령의 봉행<sup>6)</sup>조 중에 ‘黑綏長吏의 能否를 살필 것’, ‘장리가 전곡을 散失하는 것을 규찰할 것’ 등<sup>59)</sup> 두 조항은 곧 수령이 호장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읍사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현종초에 부와 친형제가 호장이 된 자는 사심관으로 차견하지 못한다고 규제하였다.<sup>60)</sup> 현종 9년에 제정한 향리의 복색이 중앙 조관에 대응할 만큼 정비되어 있었다.<sup>61)</sup> 현종 16년에 장리가 병들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한이 백일이 되면 경관에 준하여 과직수전하게 한<sup>62)</sup> 것은 향리층

54) 『高麗史』 卷78 食貨1 田制 外役田.

55) 『高麗史節要』 卷4 文宗 元年 正月, “制曰諸州府郡縣 逐年設輪經會 慮外吏憑此聚斂 以成勞弊 固非作福之意 今後醉飽娛樂之事 宜禁斷”.

56) 『高麗史』 卷85 志39 刑法 禁令2, 忠穆王 元年 五月 “又招引流移人吏 及官寺奴婢·驛子 群聚作黨 長利稱名 借貸平民 倒換文契 利中生利 今後 將所納物色 還其本主 收文契 依例決罪”.

57)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鄉職, 顯宗 9年 “是年 判 諸道外官 戶長擧望時 考其差年久近 壇典行公年數 具錄申省 方許給貼”.

58) 『高麗史』 卷100 列傳13 鄭世裕, “又在尙書省 署永州吏崔安戶長公牒已成 世裕納水州吏崔少賂 改永爲水 安爲少 以其牒給少 事覺 法當流 以計獲免”.

59)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凡選用守令, 顯宗 9年 2月, “新定諸州府員奉行六條 一 察民庶疾苦 二 察黑綏長吏能否 三 察盜賊姦猾 四 察民犯禁 五 察民孝弟廉潔 六 察吏錢穀散失”.

60)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鈐注 事審官, 顯宗初年 判, “父及親兄弟 爲戶長者 勿差事審官”.

61) 『高麗史』 卷72 志26 輿服1 官服 顯宗九年 定長吏公服, “州府郡縣戶長 紫衫 副戶長以下 兵倉正以上 緋衫 戶正以下 司獄副正以上 綠衫 并靴笏 州府郡縣史 深青衫 兵倉史諸壇史 天碧衫 無靴笏”.

이 관료제의 하부 조직으로 편입됨을 보여 준다.

경산부의 경우 현종 9년의 호장 부호장 배정 인원을 기준으로 1000정 이상 고을로 보면 호장 8 부호장 4의 인원이 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실록지리지』 성주목 토성조에 ‘本州土姓七 李, 裴, 呂, 白, 全, 朴, 車’라 하였다. 대략 토성 수 7로 호장 배정 수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호장이 이들 토성으로만 구성되고 모두 안배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고려초 경산부 향리층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는 적연국사 영준의 부모에 관한 기록이다. 영암사 적연국사비는 1023년(현종 24)에 국왕의 칙명으로 건립된 고승비이다. 비는 현존하지 않고 탁본만 전한다.

國師의 휘는 英俊이고 속성은 金氏이며 京山府人이다. 아버지 仁處는 사람됨이 고상하고 품성을 기르고 소요하며 세속에 있으면서 세속을 벗어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재가자이지만 출가자의 행실을 하고 어짐은 산 같고 지혜는 물과 같으며 명리는 풀과 같이 여겼다. 어머니 呂氏가 일찍이 어느 날 저녁에 잠이 들었을 때 홀연히 기이하고 품세가 엄숙한 사람이 자색 가사를 입은 승려와 함께 침실 안으로 들어 와 말하기를 이 승려는 浮石寺 太德인데 지금 너의 배에 들어가려는데 마시고 먹을 때 절대로 오신채와 누린내 맛 나는 것은 꺼리기 바란다 고 하였다. 이윽고 꿈임을 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하였다. 그 때 재난과 고난이 많아 피난하여 原州 관내 興法寺에 있을 때 廣順 2년 壬辰 정월 8일에 태어났다.<sup>63)</sup>

영준(932~1014)은 아버지의 金氏 성을 이었고 京山府 사람이라 하였

62)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鄉職, 顯宗 16年 2月 判 “諸州縣長吏 病滿百日 依京官例 罷職收田”.

63) 『靈巖寺寂然國師碑』, 『韓國金石全文』, 456~457쪽, “國師諱英俊 俗姓金氏 京山府人也 父仁處 爲人偶儻 養性逍遙 處世懷出世之心 在家有出家之行 仁山智水 毗[名] 母呂氏 嘗一夕魂交 忽見異人儀形儼余與一著紫沙門來入寢室內言曰 此僧是浮石寺太德 今欲入汝腹中 宜於飲食之間 切忌葷腥之味 旣而感夢 尋以有娠 時屬完[災] 道途多梗 避難寄寓於原州管內興法寺中 以廣順二年壬辰正月八日方當彌月之期載誕”.

지만 金氏는 土姓 조에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는 토성 조에 올라 있는 呂氏이다. 아버지의 고상한 인품과 세속에 있으면서 출가자의 행실을 보인 점은 좌절감을 달리 표현한 것일 수 있어서, 고려나 후백제를 적극 지지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은 신라 귀족으로 신라 말 경산부로 이주한 존재로 생각된다.

그런데 비문에 영준의 출생은 廣順 2년이라 하여 951년(광종 2)에 해당한다. 하지만 비문 말미의 示滅 시기 1014년(현종 5)과 享年 83, 過臘 69를 계산하면 출생은 932년 임진년이 옳다.<sup>64)</sup> 아직 후삼국 쟁패기였다.

그 때 재난과 고난이 많아[時屬完災道途多梗] 원주 흥법사로 피난 寄寓하여 영준을 낳은 것으로 미루어 경산부가 후삼국 쟁패의 한 가운데 있어 이 지역 세력들이 다른 곳으로 피난하는 등 동요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위의 영준과 그의 부의 김씨 경우로 보아 토성 조에 보이는 성씨가 이 지역 세력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고려중기 이승장 묘지명은 경산부 향리층의 上京從仕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 생각된다. 『이승장묘지명』 자료는 어머니의 재혼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고려시기 열녀 관념을 이해하는 호례로 이해된 바 있다. 하지만 경산부 향리층의 上京 교육과 급제 입사한 사실과 무신 정권의 혼란시에 분향으로 다시 퇴거하여 안정 후 다시 상경 종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의 성은 李氏이고, 이름은 勝章이며, 자는 質夫로 상주 京山府 사람이다. 아버지 棟民은 어려서 가족과 함께 북으로 올라가 서울에서 배웠다.[與計偕北學] 재주와 학문이 朴椿齡, 鄭知常과 이름을 나란히 하고, 乙第에 급제하여 벼슬이 권지감찰어사에 이르렀다.<sup>65)</sup>

64) 廣順 연호는 관독 문제와 오류 등의 문제가 있음이 확실하다. 수계한 시기도 946년(정종 1)인데, 비문에 天祐 3년은 唐의 연호로 보면 906년이 되어 출생보다 앞선 시기가 되어 확실한 오류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비의 탁본을 처음 소개한 허홍식교수에 의해 지적되었다(許興植, 1986. 『靈巖寺 寂然國師碑』,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65) 『李勝章 墓誌銘』, 『第四版 高麗墓誌銘集成』(金龍善 編著.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6), “公姓李氏 諱勝章 字質夫 尙州京山府人 父棟民少與計偕北 學于京 才學與椿齡知常齊名

이승장의 아버지가 상경하게 된 계기는 가족과 함께 북으로 왔다는 ‘與計偕北’이라는 표현에 좀 더 유의하면 이는 其人 선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고려사』 권75 선거지 기인조에는 ‘왕조초기에 향리의 자제를 선발하여 수도에 볼모로 데려가고 해당 지방의 고문으로 삼았는데 그들을 기인이라 하였다. 문종 31년 기인은 1000정 이상 州는 足丁이면 나이 40살 이하 30살 이상 되는 자를 선상하며 ... 족정은 15년, 반정은 10년을 기한으로 역을 지는데 반정은 7년 족정은 10년이 되면 同正職을 주고 역이 끝나면 관직을 높여 주었다’ 라는 규정이<sup>66)</sup> 있었다. 『고려사』 권83 병지 공역군조에는 ‘기인은 궁궐의 수리와 관청의 사령의 역을 맡았다. 縣吏의 자식들은 반드시 이 역을 진 다음에야 吏職에 임명될 수 있었다’ 라<sup>67)</sup> 한 기록을 보면 이승장의 조부는 기인으로 상경하여 역을 지고 동정직을 받아 이직에 나아갈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이동한 것임은, 술성재에 입학 공부하여 두각을 나타내어 국가감시를 통해 과거에 합격하여 입사할 수 있었다고 한 것에서 추측된다. 이로써 경산부 향리층에서 상경 종사할 수 있는 길이 기인역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었다.

『연조구감』 권2 관감록에 ‘李長庚 星州戶長也 羅朝忠臣戶長克臣之後也 祖敦文父得禧皆戶長也 長庚恭儉有威 鄉人懼之 生五男’ 이라 하였다. 『성주이씨세보』 권1 농서공세기에 ‘昔新羅宰相李純由改名克臣者 寔公十二代祖也 克臣之後 新羅末徙居京山府 公之曾祖孝孝參 乃其後也 孝參生敦文 敦文生得希 得希生公 公諱長庚’ 이라는 기록이 있다. 모두 조선시기에 정리된 것으로 자료적 신빙성이 낮다. 하지만 『고려사』 열전에<sup>68)</sup> ‘李兆年

擢乙第 官至權知監察御史”.

66)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其人, 文宗 31年 判, “凡其人 千丁以上州則足丁 年四以下三十以上者 許選上 以下州則半足丁 勿論兵倉正以下副兵倉正以上 富強正直者 選上其足丁 限十五年 半丁 限十年立役 半丁至七年 足丁至十年 許同正職 役滿加職”.

67) 『高麗史』 卷83 志37 兵3 工役軍, 忠宣王 元年 3月, “重新康安·延慶二宮 令郡縣 送民爲夫 其數不可紀 宰臣議發兩宮營造夫 見任宰相及諸君 日出三名 致仕宰相及見任三品 日出二名 四品以下 出有差 是謂品從 又以其人爲夫 其人者 主宮室修營 官府使令之役 郡縣吏之子 必經是役 然後得補吏職”.

字元老 京山府人 父長庚 本府吏' 라 하여 이장경이 이조년의 부로 나온다. 따라서 경산부에서 李氏는 경산부 호장으로서 대대로 그 지위를 유지해 왔으며 이조년에 이르러 상경종사 한 사실을 알 수 있다.<sup>69)</sup>

이동민, 이조년 외에도 배우, 배중선, 배중유, 배중윤, 배중보, 배중성, 배규 등은 과거 제술업 급제자인데 자료 부족으로 향공진사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중에 향공으로 급제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세종실록지리지』 토성조의 배씨도 경산부 향리층으로서 그 세력과 뿌리가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4) 資福寺와 불교의례

읍내 사원을 확인하면 성주 읍성지 밖 비석군 맞은편인 북동쪽에 동방사지 칠층석탑이 위치한다. 이는 성주 읍성에서 가장 가까운 사찰이다. 『성산지』 사찰조에도 ‘東方寺在星州面禮山洞’ 이라<sup>70)</sup> 하여 『성산지』가 찬집되던 무렵까지 폐사되지 않았다.

현재는 절터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나, 일제시기에 촬영한 사진에는 기단부의 대부분이 매몰되었고 하천둑이 석탑가까이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어느 때인가 홍수로 인하여 절터가 매몰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탑은 하천범람으로 기울어진 것을 1980년에 수리 복원하였다. 원래는 9층으로 보인다고 하며 기단이 왜소하고 옥개석이 중후한 것으로 미루어 고려시대 탑으로 본다.<sup>71)</sup>

그리고 이 절터의 유물로는 프랑스 기메 박물관 소장의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이 주목된다.<sup>72)</sup> 이 상은 받침 목재에 ‘東方寺’ 목서명이 있어 경산

68) 『高麗史』 卷109 列傳22 李兆年, “李兆年 字元老 京山府人 父長庚 本府吏”.

69) 박경자. 2001. 『고려시대 향리연구』. 국학자료원. 163-164쪽.

70) 『星山志』 卷1 寺刹.

71) 2004. 『영남의 큰 고을 성주』.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부 동방사 소장임을 추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천수관음상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런데 고려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밀교가 성행하지 않았지만, 충렬왕이 제국대장공주와 함께 천수도량을 열었다는 『고려사』 기록이 있고 충지가 국왕을 위한 천수도량을 연 기록도 있으므로, 원지배기에 천수관음이 주목된 사실을 알 수 있다.<sup>73)</sup>

더구나 경산부는 제국대장공주부 곧 膺善府의 식읍인 湯沐邑으로 지정되었으므로<sup>74)</sup> 이 지역에도 천수관음신앙이 유행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1322년(충숙왕 9) 천수관음복장의 鑄成願文과 舉案이 소개된 바 있다. 이는 불상에서 이탈되어 알려져서 원래 어디에 있던 천수관음상의 복장인지 알 수 없다. 문서에 34姓이 同願 시주로 수록되며 그 성씨가 조선전기 지리지에 올라 있는 대구와 그 부근 지역 성씨와 거의 일치한다. 셋째 쪽에는 大丘縣令, 中軍錄事, 興威衛保勝散員 등이 보인다. 특히 대구현령이 보이므로 대구인근에 있던 천수관음상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sup>75)</sup> 그래서 이 문서가 복장된 천수관음상은 대구와 가까운 경산부 동방사지에서 나온 천수관음상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1322년에 경산부 자복사인 동방사에서 많은 성씨가 참가한 천수관음 조성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경산부 읍내만 아닌 곧 속현을 포함한 경산부의 성씨들이 아닌가 한다. 고려 현종대 경산부 속현 약목군 정도사 오충석탑 조성에 참가한 사원과 승려들은 ‘京山府土’라는 범위에 있었다. 중군녹사, 흥위위보승산원 등의 경

72) 이 불상은 프랑스 리옹의 사업가 샤를 바라가 1888년 조선을 방문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하면서 수집한 한국 고미술품의 하나이다. 2001. 『TRESORS DU MUSEE GUIMET』, 『L'ART COREEN AU MUSEE GUIMET』; 2004. 『영남의 큰 고을 성주』.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참조; 샤를 바라의 여행 경로와 인상기는 샤를 바라. 사이에 룡. 성귀수 옮김. 2001. 『조선기행』. 눈빛 참조.

73) 송은석, 1999, 『고려 천수관음도 도상에 대하여』,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4.

74) 『高麗史』卷89 列傳2 后妃2 齊國大長公主, “冊爲元成公主 百官皆賀 宮曰敬成 殿曰元成 府曰膺善 置官屬 以安東京山府爲湯沐邑”.

75) 허홍식, 1994. 『1322년 천수관음복장의 조성과 사상성』. 『한국중세불교사연구』. 일조각.

군 직명이 보여 이 지역을 연고한 중앙세력도 불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천수관음상 조성은 경산부 및 그 속현과 경산부 연관 중앙세력이 참여한 불사일 가능성이 크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주 불우조에 龍興寺는 郡城 북문외에 위치하고 거기에 大藏堂이 있는데 李仁復이 記文을 썼다. 뒤에 鄉射堂이 되었으며 지금은 폐하였다고 한다. 대장당이 있었으며, 고려말 이인복이 쓴 기문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찰이었다. 음성 북문 밖에 위치하여 조선시기에 향사당으로 바뀌었던 점으로 미루어 앞서 본 동방사와 함께 경산부의 자복사가 아닌가 한다. 기록상 음성의 북쪽과 동쪽에만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경산부의 자복사는 동방사와 용흥사로 생각된다.<sup>76)</sup>

各官 자복사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치소 가까이 자복사가 위치하여 각 관의 불교행사를 담당하였다.<sup>77)</sup> 물론 자복사 승려가 이를 주관하지만, 호장층의 협력 속에서 불교의례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자복사는 호장층의 불교의례와 관련된 중심 공간인 셈이다. 경산부에서의 자복사는 앞서 살펴 본 동방사지일 것이다. 거기서 출토된 천수관음상과 그 복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조성원문에 많은 성씨가 참여한 것과 호장층의 음사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국행 정기 불교 의례 중에서 지방 사원에서 행하여진 것은 연등회와 국왕 축수도량, 봄 가을의 경행, 백고좌인왕도량에 수반하는 반승, 국가 변란시 진병법석 등이다. 이중 국왕 축수는 계수관 단위 중심 사원, 백고좌인왕 도량은 州府 단위까지 행하여졌다. 縣 단위까지 국가 정기 행사가 행하여진 것은 연등회, 경행, 진병법석 등이다. 따라서 경산부 지역에서 국가 정기 불교 의례가 행하여진 것은 연등회, 경행, 백고좌인왕 도량, 그리고 진병법석이었다. 이 의례를 행한 곳은 바로 고려시기에는 용흥사, 동방사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국가 정기 불교 의례가 행하여진 사원 용흥사,

76) 한기문. 2011.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 양상』. 『민족문화논총』 49.

77) 한기문. 2015. 『고려시대 주현 자복사와 향도의 역할』. 『동국사학』 59.

동방사는 국가의 공인 사원 裨補寺社에 속하고 鄉邑의 복을 이바지하는 이른바 資福寺였다.<sup>78)</sup>

국가 차원의 정기 불교 의례와는 달리 개인적인 연중 불교 의례가 있어 앞서 살핀 사원에서 행하여졌다. 2월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일, 3월 3일 重三日, 4월 8일 불탄절, 7월 15일의 盂蘭盆齋, 9월 9일 重九日, 12월 8일의 성도일, 그리고 忌日齋 등이 그것이다.<sup>79)</sup>

경산부 지역에서 확인되는 사원들이<sup>80)</sup> 이러한 불교 年中行事와 葬祭禮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 외에도 개인적인 발원과 경제적 구휼, 치료, 요양, 휴양 등의 사회적 기능도 함께하여 사회적 기간시설 역할을 하였다.

## 5) 神祠와 무덤공간 및 입보성

고을에는 신사 혹은 성황사로 불리 우는 고을 수호신사가 존재하여 고을민의 결속과 수호의식을 유지하였다.<sup>81)</sup> 경산부에서의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李公神井; 司倉의 뜰 가운데 星山君 이능일이 물을 마시던 우물이 있는데 廢棄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목사 신학의 꿈에 白頭翁이 나와 이르기를 ‘원컨대 그대가 나의 우물을 수리해 달라’고 하였다. (신학이) 깨어나서 이를 기이하게 여겨 古老들을 방문하여 그 우물터를 찾아 다시 우물을 파고 보호각을 지었으며[築室], 현판에 ‘李公神井’이라 題하였다.<sup>82)</sup>

78) 韓基汶. 2006. 「高麗時代 裨補寺社의 成立과 運用」, 『한국중세사연구』 21. 268-271쪽.

79) 韓基汶. 2003. 「高麗時期 定期 佛敎 儀禮의 成立과 性格」, 『民族文化研究論叢』 27. 49쪽.

80) 경산부 지역의 사찰은 읍내의 통일신라에서 고려에 이르는 시기 8개소, 인근 가야산 지역에는 7개소가 지표 조사된 바 있다. 박방룡. 2004. 「성주의 불교문화」, 『영남의 큰 고을 성주』,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참조.

81) 神祠에 관한 전반적 설명은 김갑동. 1991. 「고려시대 성황 신앙과 지방통치」, 『한국사연구』 74.

82) 『星州牧邑誌』 古蹟, “李公神井 司倉庭中有星山君李能一所汲之井 而廢棄多年 牧使申滯夢

高麗李能一; 고려 태조의 개국을 보좌하여 관직이司空에 이르렀다. 본명은 能으로서 統一三韓의 공이 있어 ‘一’字를 하사 받았다. 지금 성주의 사창은 곧 神井의 터이며, 주민들이 성황사에서 (이능일을) 향사하고 있다.<sup>83)</sup>

성황사는 성주의 성내에 있다. 邑인들이 고려司空 이능일의 목상을 만들어서 향사하였는데, 巫覡으로 이를 주관하였다. 목사 김윤제가 淫祠라 하여 그 목상을 불태웠는데, 관아 내에 질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齊潔致祭하고 글로서 사죄를 하였으며, 성황사를 다시 세웠다.<sup>84)</sup>

위의 자료는 모두 조선시기 것이지만 고려시기의 사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성황사는 경산부 읍치에 존재하였고<sup>85)</sup> 경산부 읍치가 마련되던 시기 이 지역 세력이었던 이능일을 수호신으로 내세운 신사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木像으로 향사한 것은 고려시기 이래의 제향방법임을 알 수 있다.

성주 시비실 유적은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 연장선상에 있는 현풍 김천간 고속국도 45호선 건설 구간에 위치하여 확인·조사·발굴된 것이다.<sup>86)</sup> 시비실 유적은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에 봉토분, 소형석곽분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목곽묘 50기·석곽묘 20기·옹관묘 2기·석실묘 12기, 고려-조선시기 석곽묘 2기·토광묘 3기·기와가마·건물지·주혈군 등 총 92기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고려시기로 편년되는 석곽묘 1호이다. 철화청자의 부장, 석곽과 목관을 사용한 무덤이라는 점, 그리고 교구와 관모가 출토되었다는 점 등에서, 피장자는 향리층 그중에서도 상층인 호장층

有白頭翁來告曰 願君修我井 覺而異之 訪于古老得其址 開鑿築室 懸板題李公神井”.

83) 『星州牧邑誌』人物, “高麗李能一 佐麗太祖開國 官司空 本名能 以有統一三韓之功 加賜一字 今州之司倉卽其址神井 州人祠于城隍”.

84) 『京山志』卷2, 祠廟, “城隍祠在州城內 邑人爲高麗司空李能一造木像 以祀而巫覡主之 牧使金允悌以爲淫祀 焚其像 旋因衙內疫作 人多死亡 齊潔致祭爲文以謝 復設之”.

85) 조선시기 고지도에 읍성 내에 성황사 건물 그림과 함께 ‘城隍’이라 묵서되어 있다. 2004. 『영남의 큰 고을 성주』, 19쪽 참조.

86) 2008. 『성주 시비실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교구의 출토는 피장자가 관복을 입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철제심만 남은 관모를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발견된 짝자 모양에서 그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적어도, 고려 말 이 되어서야 지방에서 묘지명이 발견되고 상층 귀족의 무덤이 조성되며 고려전기와 중기에는 관인층의 무덤은 거의 개경일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의 관모를 부장한 무덤은 관인층의 것이기 보다 지방 향리층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도경』에는 호장층으로 추측되는 民長의 복장에 대해 ‘그 복식은 文羅로 巾을 만들고 검은 명주로 갓옷을 삼으며, 흑각의 대를 두르고 검은 가죽의 네모난 신발을 신으니, 아직 입사하지 않은 진사의 복식과 비슷하다’ 하였다.<sup>87)</sup> 이규보는 『남행월일기』에서 전주 향리의 모습이 衣冠士人과 같다고 하였다.<sup>88)</sup> 그런데 관모가 문라건이라 하여 시비실 무덤의 것과 다르다. 하지만 향리복색이 조관복색제와 상응하여 성립된 점을 고려할 때, 지방 향리의 복색은 관모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복색관복·靴·笏을 갖추었다고 하므로 당연히 관모도 있었을 것이다.<sup>89)</sup>

시비실 고려 무덤이 향리층의 무덤 사례로 인정된다면, 이를 통해 고려 시기 경산부 향리층의 공간적 제한 범위를 구성해 볼 수 있다. 시비실 고려 무덤에서 서북쪽으로 이천을 건너 현재 성주읍시가가 형성되어 있다. 시비실 유적은 성산 고분군의 바로 서쪽 가까운 거리에 해당한다. 시비실 유적에서는 단 1기의 향리층 무덤이 발견되었지만, 성산고분군에는 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산은 경산부 치소에서 동남으로 바로 보이는

87) 『선화봉사고려도경』 권19 民庶 民長, “民長之稱 如鄉兵保伍之長也 卽民中 選富足者爲之 其聚落大事 則赴官府 小事則屬之 故隨所在細民 頗尊事焉 其服 文羅爲巾 阜紬爲裘 黑角束帶 烏革句履 亦與未預貢進士服飾 相似也”.

88) 『東國李相國集』卷23 記 南行月日記, “夫全州者 或稱完山 古百濟國也 人物繁浩 屋相櫛比 有故國之風 故其民不椎朴 吏皆若衣冠士人 進止詳審可觀”.

89) 한기문. 2011. 『고려시대 성주 호장층의 존재양태와 활동공간-성주 시비실 유적을 중심으로-』, 『복현사림』 29.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향리층의 무덤군으로는 적합한 위치로 생각된다.

이 고분군 뒤로 성산의 정상부가 보이는데 성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성산성이 언제 축조되고 언제까지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다만 경산부의 入保城일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경산부 읍치의 구성은 외관청인 公衙, 京山府司, 鄉校, 資福寺, 神祠, 무덤공간, 入保城 등이었다. 이의 운영 주체는 지역 향리층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 토성 조에 반영된 李, 裴 등의 성씨에서 향리층이 배출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지역 내 다른 성씨와 혼인 관계가 형성되면 성씨만으로 향리층을 이해할 수는 없다. 외관 수령은 중앙 상서도성에 호장 擧望과 이들에 대한 監察 정도의 권한에 머물고, 속관 문사를 통한 향교 운영, 그리고 주로 지역 내 송사에 관여하였다. 향리층은 입사층으로 지방행정을 전담하면서 수령과 함께 향교 대성전 석전, 불사, 신사 등의 의례를 주도하여 향촌 사회의 결속을 이끌었다.

## 4. 경산부의 변천

경산부 속현의 주현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大丘縣은 인종 21년 현령관으로 승격되면서 경산부의 속읍인 花園縣·河濱縣을 移屬받았다.<sup>90)</sup> 高靈郡은 명종 5년, 利山縣은 동왕 6년에 監務가 파견되었다.<sup>91)</sup> 管城縣 역시 충선왕 5년 知事郡으로 승격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승장이 명종 연간에 관성현위가 되었다가 경산부 본읍으로 피신한 사례가 있어 인종 21년에 감무가 파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충선왕 5년 승격은 명종

90) 윤경진. 2012. 『고려 인종 21년 현령 증치와 영속관계 개편』, 『사림』 43.

91) 김동수. 1989. 『고려 중·후기의 감무 파견』, 『전남사학』 3.

12년에 현의 吏民이 현령 洪彦을 유폐했다가 관호 삭제의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지주사로 승격한 것이다.<sup>92)</sup> 그리고 경산부 예하의 利山縣, 安邑縣, 陽山縣 등 3개의 속읍을 이속 받았다. 공양왕 2년에는 仁同縣, 知禮縣, 金山縣, 黃澗縣에 감무가 파견되었다.<sup>93)</sup> 15개 속읍을 기반으로 한 광대한 영역의 경산부는 3개의 속현만을 거느리는 형태로 그 읍세가 크게 약화되었다. 조선시기 태종 1년 성주목이 되었고, 태종 5년 태실을 두는 조치에 따라 화원현이 다시 성주목으로 이속되었다.<sup>94)</sup>

인종 초에 속종의 왕자 대방공 備가 이자겸의 전횡시에 경산부에 유배되었다가 인종 6년에 풀려났다.<sup>95)</sup> 당시 대원공 효도 이자겸에 의해 영남에 유배되었다가 인종 7년에 유배가 풀린 적이 있다.<sup>96)</sup> 영남이라 칭한 곳의 구체적인 지역은 알 수 없다. 경산부는 인종 초 대방공 보가 5년여 유배생활을 한 곳이었다. 어떤 이유로 이곳에 유배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고려시대의 농민항쟁은 1170년 무인집권의 성립과 함께 폭발하기 시작하여 120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간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후 최씨정권의 강압적인 진압과 뒤이어 1230년대 이후 고려와 원과의 30년간 지루한 전쟁을 치루는 가운데서도 농민항쟁은 산발적으로 전개되었고 삼별초난이 종결된 12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로 보아, 대부분의 민란이 무신정권하에 일어났다.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약 1세기 간 지속된 대규모의 것이었다.

경산부 지역은 대규모 농민항쟁의 진원지가 되지는 않았다. 다만 경산부 속현 관성현의 경우는 이승장이 1172년(명종 2) 관성현위로 나갔다가 1173년 여러 군이 소요를 일으켜 수령들이 죽는 사태가 발생하자 경

92) 윤경진. 2012. 앞의 논문.

93) 김동수. 1989. 앞의 논문.

94) 『太宗實錄』 卷10 太宗 5年 7月 甲辰, “星州任內花園”.

95) 『高麗史』 卷15 世家15 仁宗 卽位年 12月 丙申, “放帶方公備于京山府”; 『高麗史』 卷15 世家15 仁宗 6年 4月 己巳, “帶方公備卒于京山府”.

96) 『高麗史』 卷90 列傳3 宗室 大原公倬, “貶在嶺南 非寡人之意”.

산부로 가족을 이끌고 피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이승장 묘지명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임진년 管城縣尉가 되어 나가자 정치를 간편하게 하고 형벌을 맑게 하여 백성들이 편하게 여겼다. 계사년에 여러 군이 소요를 일으켜 수령들을 다 죽이면서 목은 원한을 갚았는데 공은 홀로 아랫 사람들을 아꼈으므로 백성들이 떠받들어 이 재난을 면할 수 있었다. 이에 가족을 이끌고 본읍으로 피하여[挈家避居本邑] 마을에 살면서 오로지 경전과 역사서로서 스스로 즐거움을 삼았다. 갑오년에 악인이 죽음을 당하자, 공은 무술년 봄에 서울로 올라가 벼슬을 구하여 직사관에 발탁되고, 여러 번 옮겨 흥위위녹사참군겸권직랑임이 되었다.<sup>97)</sup>

이상에서 이승장은 본향 곧 경산부로 귀향하여 경전과 역사서를 읽으면서 안정할 수 있었고 소요가 진정되자 다시 상경 구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본향으로 귀향을 통해 안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장이 사심관으로 지정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경 관인이 되면 직급에 따라 5향에서 2향에 이르기까지 사심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사심으로 귀향할 수 있는 점은 있다고 하여도 당시 피난하여 독서할 수 있었을 정도로 이 지역은 안정된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1170년대에는 경산부에서는 수령과 재지 호장층과 갈등은 없었던 것 같다.

몽고와의 항쟁기에도 이 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대 집정자 崔沆이 이 지역의 별공 黃麻布를 면제하여 민심을 안정시킨 사례가 있다.<sup>98)</sup> 이는 대몽항전기에 최항 정권에서 이 지역에 대해 배려하여

97) 『李勝章 墓誌銘』, 『第四版 高麗墓誌銘集成』(金龍善 編著,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6), “壬辰出補管城縣尉 政簡刑清 民以爲便 及癸巳擾攘列郡皆殲令長 以償宿冤 公獨愛爲下民 推載獲免斯厄 挈家避居本邑 沉浮里閭 專以經史自娛 適甲午年大慙伏誅 公於戊戌春上洛求仕 擢直史館 累遷典衛衛錄事祭軍權兼直翰林”.

98) 『高麗史節要』 卷15 高宗3 37年, “春正月 崔沆 以教定別監牒 除清州雪縣子 安東眞絲 京山府黃麻布 海陽白紵布 諸別貢 及金州 洪州等處 魚梁船稅 又徵還諸道教定收獲員 委

중요시 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원간섭기 충렬왕대에 이 지역은 제국대장공주부 곧 膺善府의 식읍인 湯沐邑으로 지정되었다. 안동부와 더불어 지정된 것인데 지정 배경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탕목읍은 곧 食邑을 말한다. 고려시대 식읍은 食實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인정권하의 진양부의 진주 식읍은 식실봉으로 추정한다. 응선부의 탕목읍도 식실봉으로 여기서의 수조는 모두 응선부에서 직접 관할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충렬왕 4년 경산부 관내 군현 貢賦는 大府, 小府 등 소납을 제외한 모든 것은 제국대장공주가 있는 元成殿에 내도록 旨를 내리고 있다.<sup>99)</sup> 그리고 충렬왕 14년 7월 伍允孚가 星變으로 인하여 왕에게 아뢰어 公主 식읍 안동, 경산부의 布帛을 左倉에 돌려 백관의 녹봉에 충당하도록 한 사실에서도,<sup>100)</sup> 경산부는 제국대장공주의 식읍 지로서 여기의 공부는 모두 공주부의 재정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충선왕대에도 계림, 복주, 경산부를 식읍으로 하여 尙書 仇權을 보내 賦稅를 감독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sup>101)</sup> 충선왕대에도 경산부는 식읍으로 존재한 것이다.

충렬왕이 즉위하면서 응선부가 설치되고 탕목읍이 지정된 만큼, 경산부는 충렬왕대에 나름의 지방제도나 지역 세력의 변동이 예상된다. 『고려사』 지리지 경산부 연혁에 따르면, 충렬왕대 興安都護府가 되었다가 星州牧으로 되었으나 충선왕대 경산부로 환원되었다.<sup>102)</sup> 이는 경산부가 응선부 탕목읍 지정에 따른 읍격 조정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공주 탕목읍을 ‘美

其任於按察使 以收人心”.

99) 『高麗史』 卷28 世家28 忠烈王1 4年, “戊戌有旨 以安東京山府管內郡縣貢賦 除大府迎送小府等庫所納外 皆輸于元成殿”.

100) 『高麗史節要』 卷21 忠烈王3 14年 7月, “伍允孚 因星變白王 以公主食邑安東 京山府布帛 歸于左倉 以充百官俸”.

101) 『高麗史』 卷34 世家34 忠宣王2 3年, “八月庚午 王以雞林福州京山府爲食邑 遣郎將仇權督其賦稅”.

102) 이강한은 목신설과 부로 개편은 고려 전통 지방단위의 확대와 원 지방제 참조의 맥락이었다고 한다(2012. 『1308~1310년 고려내 “목부신설”의 내용과 의미-충선왕대 지방제도[계수관제] 개편방향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158).

邑'이라 칭하고 있으며 거기에 부임하는 知州府副使가 紅鞵을 띠는 특전을 받았다.<sup>103)</sup> 紅鞵은 지주부사이하는 띠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복규정이었다.<sup>104)</sup>

그런데 응선부의 경제기반이 된 이상 현지 협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 협조는 바로 경산부 호장층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충렬왕대 경산부 호장층 중에 李長庚이 주목된다. 그는 충렬왕 때 경산부 府吏였다. 그의 부 得禧, 조부 敦文도 府吏였던 호장층이었다. 그의 증손자 李仁復墓誌銘에는 다음과 같이 그의 위상에 대해 이례적 서술을 하였다.

증조 長庚은 공손하고 검소하였으나 위엄이 있어서 고향 사람들이 엄하고 두려워하였다. 비록 조정에서 벼슬하는 사람들도 모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서로 돌아보며 말하기를, “우리 공이 듣는다면 그 뜻이 옳지 않다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고, 또 참으로 허물이 있으면 공이 반드시 글을 보내어 꾸짖었다. 늙어서 은퇴하여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고을의 관리들이 그가 행차하는 길을 피하라는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의자에서 내려와 땅에 엎드렸다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다시 앉았다. 아들 네명이 있었는데, 百年은 아무 관직에 있었고, 千年은 아무 관직에 있었는데 遼陽省 參知政事 承慶을 낳았으니 그의 손자가 귀하게 되어 아무 관직에 추증되었다. 셋째 아들 萬年은 아무 관직을 지냈고, 막내 아들은 兆年인데, 곧 선생의 조부로 벼슬은 政堂文學에 이르렀고, 시호는 文烈이다. 선생이 한가로이 쉬며 말할 때에는 반드시 증조부 호장공을 칭송하였다. ... 문열공은 아직 어른이 되기 전에 용모와 정신이 뛰어나고 걸출하여 草溪 鄭允宜가 그 고을에 부사로 왔다가 한 번 보고 특별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의 딸을 처로 삼게 하였다. 얼마 안 되어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임명되니 이름이 나날이 증해졌다.<sup>105)</sup>

103) 『高麗史』 卷29 世家29 忠烈王 5年 夏4月 辛卯 “傳旨曰 安東公主湯沐邑也 副使宋由義其帶紅鞵之任 由義以三品求美邑 又請紅鞵 時議譏之”.

104) 『高麗史』 卷72 志26 輿服1 冠服.

묘지명에는 대개 그 주인공에 대해 중점 서술하는데, 부와 조부는 물론 증조부에 대한 서술까지 한 것은 특별하다. 위에서 이장경은 경산부 내에서 위엄은 물론 조정에 벼슬하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뜻을 살폈으며 허물이 있으면 글을 보내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 구체적 사안은 알 수 없으나, 공주 탕목읍의 호장으로서 위상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정윤의가 경산부사로 부임하여 이장경의 아들을 사위로 맞은 일도 보통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조년이 걸출함 때문일 수 있지만, 이장경의 응선부와 관계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경산부 내에서의 은퇴 후 그의 위상은 고을 관리가 그의 행차길 피하라는 소리에도 공경의 표시를 극진히 한 사실을 적어두었다. 그의 후손이 영달한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조정 벼슬하는 자가 경산부에 있는 그의 의향에 신경을 쓴 것은 아무래도 경산부의 실질 행정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공주부 탕목읍 사안일 것이다.

金瑞芝는 충렬왕 29년 경에 興安都護府 副使로 있다가 파직되었다. 흥안도호부는 곧 경산부가 충렬왕 때 읍격이 상승되어 명호가 개정된 것이다. 김서지의 파직 경위는 경산부의 향리 裴度와의 사이에 유감이 있었고, 경산부 기녀 출신 鳳池蓮이 충렬왕의 총희가 되어 있어 그녀에 부탁하여 충렬왕에 하소연하여 왕이 그를 파직하고 가족도 적몰한 것이다.<sup>106)</sup> 부사와 경산부 향리와의 충돌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향리 세력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충렬왕 즉위초부터 성립된 제국 대장공주부 응선부의 설치와 그 부의 탕목읍의 하나로 경산부가 지정됨에

105) 『李仁復墓誌銘』, 『牧隱文藁』卷15, “曾祖諱長庚 恭儉有威 鄉人嚴憚之 雖仕于朝者 凡於舉措 皆相顧曰 吾公聞之 得無不可於意否 苟有過 公必貽書切責之 老而家居 聞府官喝道聲 必下床伏于地 俟其聲不聞 然後復坐 有子四人 曰百年 某官 曰千年 某官 生遼陽省參知政事諱承慶 以孫貴贈某官 曰萬年 某官 季曰兆年 先生之祖也 官至政堂文學 諡文烈 先生清燕 言必稱曾大父戶長公 … 文烈年未冠 神采秀發 草溪鄭允宜使其府 一見知其異人 以其子妻之 未幾擢第補官 名日益重”.

106) 『高麗史』卷32 世家32 忠烈王5 29年, “己酉罷興安都護府副使金瑞芝 王之幸姬鳳池蓮者本府妓也 邑吏裴度嘗有憾於瑞芝 托鳳池蓮訴王 遂罷瑞芝籍其家”.

따른 경산부 호장의 위상이 격상됨에 따른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공민왕대부터 왜구의 노략질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왜구들은 해안은 물론 내륙지방에까지 들어와 온갖 만행을 자행하였다. 심지어는 개경 근방에까지 출몰하여 수도 일대에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하였다. 고려말에 내륙지역에 위치하였지만 낙동강 수계상에 있던 경산부에서도 왜구가 들어 온 사실이 있다. 우왕 6년 6월과 8년 6월에 있었다.<sup>107)</sup> 특히 8년 6월의 침입에는 경산부 裴中善의 딸이 절개를 보여 순절한 사실이 있고 이를 趙浚이 경상도 체핵사로 와서 보고하여 비를 세워주었다.<sup>108)</sup> 이송인도 裴烈婦傳을 지어 그 순절을 알렸다.<sup>109)</sup> 배씨는 진사 배중선의 딸인데 15세가 넘는 뒤에 사족 李東郊에게 출가하여 내정의 일을 잘 다스렸다. 홍무 경신년(1380)에 왜적이 경산에 침입함에 온 경내가 소요하여 막을 자가 없었다. 동교는 그 때 합포 원수 막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적병이 배씨 사는 동네에 돌입함에 강에 뛰어들어 적의 화살을 맞고 순절하였다.<sup>110)</sup>

## 5. 맺음말

경산부의 성립과 변천을 고을의 공간구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107) 『高麗史節要』卷31 禡王 6年 6月, “倭侵京山府”; 禡王 8年 6月 “倭寇慶山大丘花園雞林等處”.

108) 『高麗史節要』卷31 禡王 8年 6月, “遣典法判書趙浚 爲慶尙道體覆使 時倭寇甚熾 州郡騷然 民皆奔竄山谷 而國無紀綱 將帥環視不戰 賊勢日盛 浚至 號令嚴明 諸將股栗 連戰告捷 一道之民 賴以稍安 … 京山府人裴仲善之女 爲倭再逐 負其兒至所耶江 江水方漲 裴度不能脫 投入水中 賊至江岸 持滿注矢曰 爾來可免死 女曰 吾書生之女 嘗聞烈女不更二夫 之死不汝所辱 賊射之 中其兒 賊引滿又語如前 竟不出遇害 … 三人節孝如是 可旌其門 以勸來者 遂立石記其事”.

109) 『陶隱集』卷5 裴烈婦傳.

110) 『新增東國輿地勝覽』卷28 星州 烈女.

다. 지리지와 연대기, 금석문, 고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향촌사회사 연구성과를 활용하였다. 논의한 바를 요약하여 맺음말로 삼는다.

경산부는 후삼국 쟁패기 동남지역에서 고려와 후백제의 전략적 요충이었다. 이충언의 태조를 돕는 선택에 따라 940년 군현 명호 개정시에 경산부로 되었는데 신라말 이래 경산부 읍호는 계승하되 읍치 위치를 성산군에서 벽진군으로 바꾸었다. 성종대 군사적 성격의 도단련사로 되었다가 현종대 15개 속현과 읍치 가까이 4개 부곡을 거느리고, 京山府道의 여러 역과 원, 그리고 진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 군사적 거점지로 형성되었다.

읍치는 현 성주군일대임은 성주읍성조사에서 밝혀졌다. 고을의 운영은 경산부사와 속관, 호장층이 중심이었다. 수령은 외관청에서 송사 처리와 호장 거망, 감찰, 향교 관리 등이 주된 역할이었고 호장층은 읍사에서 일반행정과 주민 결속 의례를 자복사, 신사를 통해 주도하였다. 향리층에서는 기인과 향공을 배출하여 상경종사하였다. 재지세력의 무덤 공간은 읍치의 동남의 일대로 보이고 그 뒤의 성산이 입보성으로 생각되었다.

경산부의 속현들은 인종대부터 주현화가 진행되어 고려말에는 3개의 속현만 남았다. 무신집권기 농민항쟁기와 몽고와 항쟁기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 원간섭기 충렬왕과 충선왕대에는 공주부의 탕목읍이 되었고, 이에 따라 재지 호장층의 위세가 높았으며 홍안도호부, 성주목으로 승격되어 계수관이 되기도 하였다. 우왕대에는 왜구가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여 경산부에 두 차례나 침입하였으며 순절 사례가 있었다.

## 참고문헌

### 저서

- 강은경. 2002. 『고려시대 호장층 연구』. 해안.
- 구산우. 2003. 『고려전기 향촌지배체제연구』. 해안.
- 이기백·김용선. 2011.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 이수건. 1984.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 박경자. 2001. 『고려시대 향리연구』. 국학자료원.
- 박용운. 1990. 『고려시대음서제와 과거제도연구』. 일지사.
- 박종기. 2002. 『지배와 자율의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 박종기. 2016. 『고려사 지리지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박종진. 2017. 『고려시기 지방제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원.
- 허흥식. 1986.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 허흥식. 1994. 『한국중세불교사연구』. 일조각.
- 한기문. 2017. 『고려시대 상주계수관 연구』. 경인문화사.
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上.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성주읍성지표조사보고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성주 시비실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샤를 바라, 샤이에 룡. 성귀수 옮김. 2001. 『조선기행』. 눈빛.

### 논문

- 김갑동. 1988. 「고려 태조대 군현의 내속관계 형성」. 『한국학보』 52.
- 김갑동. 1991. 「고려시대 성황 신앙과 지방통치」. 『한국사연구』 74.
- 김동수. 1989. 「고려 중·후기의 감무 파견」. 『전남사학』 3.

- 구산우. 1998. 「고려 태조대의 지방제도 개편 양상-『고려사』 지리지 중심적으로-」. 『부대사학』 22.
- 류영철. 2001. 「후삼국정립기 고려의 지방경영과 府의 성립-邑格의 변화를 중심으로-」.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 박종기. 1988. 「고려 태조 23년의 군현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19.
- 박종진. 2008. 「고려시기 주속현단위 설정 배경에 대한 시론-청주목지역의 지리적 특징분석-」. 『한국중세사연구』 25.
- 박종진. 2010. 「고려시기 ‘상주목 지역’의 구조와 지리적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29.
- 박종진. 2014. 「고려시기 ‘밀성군 지역’의 성립과 지리적 범위」. 『한국중세사연구』 38.
- 송은석. 1999. 「고려 천수관음도 도상에 대하여」.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4.
- 송춘영. 1987. 「고려시대 향교의 변천사적 고찰」. 『역사교육』 41.
- 이강한. 2012. 「1308~1310년 고려내 “목부신설”의 내용과 의미-충선왕대 지방제도[계수관제] 개편방향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158.
- 李明植. 2001. 「羅末麗初 星州地方의 豪族勢力」. 『大丘史學』 65.
- 이수진. 1989. 「고려시대 읍사 연구」. 『국사관논총』 3.
- 윤경진. 1996. 「고려 태조대 군현제 개편의 성격-신라 군현제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22.
- 윤경진. 1999. 「고려전기 호장의 기능과 외관의 성격」. 『국사관논총』 87.
- 윤경진. 2012. 「고려 인종 21년 현령 증치와 영속관계 개편」. 『사림』 43.
- 윤경진. 2018. 「신라말 고려초 京山府 연혁과 碧珍郡」. 『역사문화연구』 66.
- 정요근. 2008. 『고려 조선초의 역로망과 역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요근. 2009. 「후삼국시기 고려의 주(州)·부(府) 분포와 그 설치 의미」.

『역사와 현실』 73.

韓基汶. 2003. 「高麗時期 定期 佛教 儀禮의 成立과 性格」. 『民族文化研究論叢』 27.

韓基汶. 2006. 「高麗時代 裨補寺社의 成立과 運用」. 『한국중세사연구』 21.

한기문. 2011. 「고려시대 성주 호장층의 존재양태와 활동공간-성주 시비실 유적을 중심으로-」. 『복현사림』 29.

한기문. 2011.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 양상」. 『민족문화논총』 49.

한기문. 2015. 「고려시대 주현 자복사와 향도의 역할」. 『동국사학』 59.

황선영. 1994. 「신라하대의 부」. 『한국중세사연구』 1.

旗田巍. 1960. 「高麗王朝成立期の府と豪族」. 『法制史研究』 10.

(2019. 01. 29. 접수: 2019. 02. 20. 수정: 2019. 03. 07. 채택)

### 한기문

현재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 불교사, 금석문, 지방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일연과 삼국유사』(공저), 『고려시대 율령의 복원과 정리』(공저), 『고려시대 상주계수관 연구』 등이 있다.  
E-mail: hkm@knu.ac.kr

---

##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Gyeongsanbu in Goryeo

---

Han Kimoon(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Gyeongsanbu Governor, Hojangstrata, Jaboksa, Tangmogeup,  
Gyeosugwan

I explore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Gyeongsanbu on its spac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in geography, chronology, epigraphy and archeology.

Gyeongsanbu was the Goryeo-Hubegje's trasportal-military strategic fortress of the southeast in Post-Three-Nations' battle. By Yi Chong-eon's choice of supporting Taejo it became Gyeongsanbu at the Gun-Hyeon naming time. In Seongjong it was the military Dodanryeonsa. Hyeonjong made it as the traffic-military center networking Gyeongsanbu-Road's Yeogs, Wueons, Jins and controlling 15 Hyeons and 4 Bugogs.

On the study of Seongjueup-Wall its eup-office was today's Seongju. Gyeongsanbu Governor, officials and Hojangstrata played its management. The Governor judged lawsuits. He loosely controled Hojang and Hyanggyo. Hojangs did administration. They charged villagers-union rituals through Jaboksa and Sinsa. I guess the provincial power elites' tombs as eup-office's southeast and think the rear Seongsan as Ibbo-Wall.

By the Ju-Hyeonization from Injong its Sok-Hyeons remained 3 Hyeons in the later Goryeo. In Won-Intervention it became Tangmogeup as the Princessbu. So the settled Hojangs' prestige upgraded. Also its status elevated as Gyeosugwan.